

2019년 12월 1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장 마감 직전 차익 매물 출회

클린턴 사례: 탄핵 표결 전 3 주동안 -9%, 표결 후 2 주동안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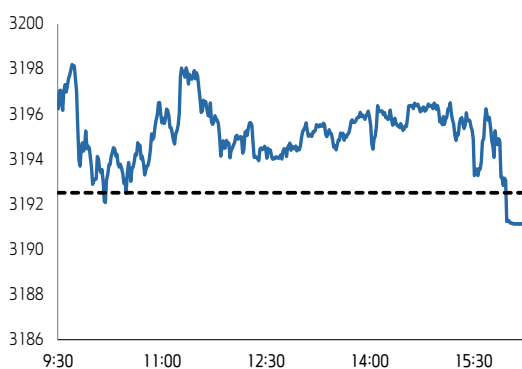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미국 탄핵 이슈 점검

미 증시는 의회의 트럼프 탄핵관련 표결을 앞두고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 이런 가운데 주요 지수는 개별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 변화 및 실적 발표 등에 따라 등락을 보이며 매물 소화 과정을 보임. 한편 클린턴 사례에서 보듯 탄핵 절차 종료 후 불확실성 완화 기대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며 장 후반 상승세 이어가기도 했으나 장 마감 직전 차익 매물 출회되며 결국 혼조 마감(다우 -0.10%, 나스닥 +0.05%, S&P500 -0.04%, 러셀 2000 +0.25%)

민주당 중심의 미 하원은 트럼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탄핵 소추안을 공개. 그 내용은 ①권력남용 ②의회방해인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정치적 경쟁자(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요구한 부분과, 의회 조사 시도를 방해한 부분이 탄핵. 한편, 미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라는 점을 감안(233:197) 탄핵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대통령 사임을 결정하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53:45:2)라는 점, 그리고 상원에서는 2/3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 트럼프의 대통령직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한편, 미국은 3 차례(1886 년, 1974 년, 1998 년) 탄핵 이슈가 있었음. 당시 주식시장을 보면 먼저 닉슨때는 미 경제가 1 차 석유 파동으로 이미 큰 충격을 받고 있었음. 그러던 중 닉슨이 사임(74 년 8/9)을 발표하자, 사임후 12 월 6 일까지 30% 급락. 그러나 석유파동이 진정되고 정치 불안감이 완화되자 1975 년 이후 미 증시는 다시 반등. 클린턴 때는 1998 년 하반기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과 LTCM 파산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었음. 여기에 클린턴에 대한 탄핵이 시장 변동성을 더욱 확대. 1998 년 12 월 19 일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었으나, 1999 년 2 월 12 일 상원에서 부결되며 일단락. 이후 LTCM 파산에 대응한 미 연준의 세번의 금리인하, 그리고 대통령 탄핵안 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영향으로 미 증시는 역사적인 랠리를 펼침. 결국 과거 사례에서 보듯 탄핵 이슈 보다는 당시 경제적인 이슈(74 년 1 차 오일쇼크, 98 년 연준 금리인하)에 더 집중. 그런 가운데 클린턴 때 처럼 정치 불확실성 완화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어 트럼프 탄핵 절차는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주요국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0.04	2,194.76	홍콩	+0.15	27,884.21	+0.15	
KOSDAQ	-0.25	648.95	영국	+0.21	7,540.75	+0.21	
DOW	-0.10	28,239.28	독일	-0.49	13,222.16	-0.49	
NASDAQ	+0.05	8,827.73	프랑스	-0.15	5,959.60	-0.15	
S&P 500	-0.04	3,191.14	스페인	+0.06	9,621.80	+0.06	
상하이종합	-0.18	3,017.04	그리스	+1.25	905.64	+1.25	
일본	-0.55	23,934.43	이탈리아	-0.01	23,628.87	-0.0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마이크론 시간 외 3% 상승

페이스북(+2.07%)은 도이체뱅크가 인스타그램 등 핵심 앱이 2020년 실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상향조정(260달러→270달러) 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트위터(+3.19%)는 씨티그룹이 실적 부진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45달러→36달러) 했으나 상승했다. 장 초반 씨티그룹 발표로 하락 출발 했으나, 페이스북의 강세가 이어지며 옵션시장 참여자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이어지는 등 수급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라이릴리(+3.31%)은 모건스탠리가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가 높다며 투자 의견을 상향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넷플릭스(+1.69%)는 전일에 이어 오늘도 아시아 지역 고객 급증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L브랜드(+3.24%), 갭(+2.37%), 노드스트롬(+3.03%) 등 의류 유통업체들은 연말 쇼핑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상승했다. 반면, 페덱스(-10.03%)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하향 조정, 아마존과의 협정 파기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했다. UPS(-1.91%)도 동반 하락했다. 한편,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포기한 가운데 브로드컴(+1.12%), NVIDIA(+0.53%)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마이크론(+0.08%)은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후 시간 외로 3% 상승 중이다.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 조정에 따른 결과로 추정한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61%	대형 가치주 ETF(IVE)	-0.06%
에너지섹터 ETF(OIH)	+0.91%	중형 가치주 ETF(IWS)	+0.26%
소매업체 ETF(XRT)	+0.97%	소형 가치주 ETF(IWN)	+0.43%
금융섹터 ETF(XLF)	-0.42%	대형 성장주 ETF(VUG)	+0.11%
기술섹터 ETF(XLK)	-0.01%	중형 성장주 ETF(IWP)	+0.0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52%	소형 성장주 ETF(IWO)	+0.13%
인터넷업체 ETF(FDN)	+0.34%	배당주 ETF(DVY)	+0.34%
리츠업체 ETF(XLRE)	+1.41%	신흥국 고배당 ETF(DEM)	+0.46%
주택건설업체 ETF(XHB)	-0.46%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0%
바이오섹터 ETF(IBB)	-0.36%	미국 국채 ETF(IEF)	-0.27%
헬스케어 ETF(XLV)	+0.14%	하이일드 ETF(JNK)	+0.18%
곡물 ETF(DBA)	-0.18%	물가연동채 ETF(TIP)	-0.11%
반도체 ETF(SMH)	-0.35%	Long/short ETF(BTAL)	-0.8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48.83	+0.30%	+2.75%	+4.83%
소재	379.11	-0.24%	+1.02%	+0.76%
산업재	682.08	-0.50%	-0.02%	-1.04%
경기소비재	972.81	-0.00%	+1.90%	+2.87%
필수소비재	640.66	-0.37%	+0.17%	+1.52%
헬스케어	1,176.70	+0.12%	+1.90%	+4.15%
금융	509.73	-0.47%	+1.94%	+3.03%
IT	1,576.83	-0.06%	+2.38%	+2.59%
커뮤니케이션	180.67	+0.29%	+1.01%	+1.69%
유틸리티	325.89	+0.43%	+2.33%	+2.62%
부동산	233.83	+1.33%	-0.37%	-2.4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인 상승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는 0.02% 하락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는 0.54%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333 계약 순매수 한 가운데 0.75pt 상승한 292.05pt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65.4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는 트럼프에 대한 탄핵 표결에 돌입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 국면 이후에는 경기여건에 따라 시장 등락이 엇갈렸다. 1974년 닉슨 사임 이후 미국경제는 1차 오일쇼크 영향으로 불황을 보였으며, 증시도 급락한 반면 1998년 클린턴 탄핵 부결 후 미 증시는 IT 붐과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로 급등했다. 이를 감안 트럼프 탄핵은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 불확실성 완화 기대가 유입될 여지가 높아 관련 이슈 종료 후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높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내년 1월 초 미-중 무역협상 서명 시기까지 기업들의 실적과 개별 산업에 대한 이슈에 반응을 보이며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 증시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초 대비 70% 가까이 급등하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견인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도 메모리 수요 증가로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시간 외로 3% 상승 중이다. 이는 한국 증시 상승 요인이다. 다만, 미 증시 마감 직전 차익매물을 내놓았던 점을 감안 한국 증시에서도 이러한 매물 소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독일 경제지표 개선

12월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는 전월(95.1)이나 예상(95.6)보다 양호한 96.3으로 발표되었다. 현재 평가지수는 전월(98.0)보다 개선된 98.8로 발표됐으며, 기대지수 또한 92.3에서 93.8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독일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졌다.

11월 영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5%로 예상(yoy +1.4%)을 상회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7% 증가해 예상과 부합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상승

국제유가는 전미석유협회(API)가 전일 장 마감 후 원유재고가 470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한 여파로 하락했다. 다만, 미 에너지 정보청(EIA)가 원유재고에 대해 109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낙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EIA 는 가솔린은 190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협상 이후 낙관적인 수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이제는 재고와 경제지표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달러화는 브렉시트 유예기간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와 유로화는 독일 경제지표 개선 불구 브렉시트 관련 우려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한편, 캐나다 달러는 USMCA 협정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브렉시트 유예기간을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두고 설령 하원 통과 되더라도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클린턴 사례에서 보듯 탄핵 이슈가 종료된 이후 정치 불확실성 해소 기대가 더 높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중국 인민은행의 단기 유동성 공급, 독일의 경제지표 개선 등도 국채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와 트럼프 탄핵 관련 불확실성이 유입되며 강보합을 보였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독일 경제지표 개선과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08%, 철근은 0.09% 하락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0.93	-0.02	+3.69	Dollar Index	97.398	+0.18	+0.33
브렌트유	66.17	+0.11	+3.84	EUR/USD	1.1115	-0.31	-0.13
금	1,478.70	-0.13	+0.25	USD/JPY	109.59	+0.10	+0.95
은	17.049	-0.13	+1.19	GBP/USD	1.3081	-0.38	-0.87
알루미늄	1,777.00	+0.74	+0.97	USD/CHF	0.9803	-0.06	-0.31
전기동	6,174.50	-0.41	+0.30	AUD/USD	0.6854	+0.04	-0.32
아연	2,301.00	+0.85	+3.56	USD/CAD	1.3110	-0.38	-0.49
옥수수	387.00	-0.77	+4.24	USD/BRL	4.0677	-0.10	-1.22
밀	548.25	-1.44	+5.58	USD/CNH	7.0015	+0.04	-0.38
대두	940.50	-0.03	+3.58	USD/KRW	1168.80	+0.22	-2.17
커피	133.20	-0.37	-1.48	USD/KRW NDF1M	1165.45	+0.21	-1.98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920	+4.03	+12.90	스페인	0.425	+3.50	+1.50
한국	1.610	+1.00	-1.00	포르투갈	0.384	+3.30	+3.10
일본	-0.012	-0.80	-1.50	그리스	1.270	-6.50	-8.50
독일	-0.249	+4.60	+7.20	이탈리아	1.336	+6.50	+13.30